

무위당 장일순의 생애와 교육사상

- 평생교육에의 함의 -

신민선 (서울여자대학교, 조교수)*

요약

삶의 터전을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변화를 이끈 지도자의 삶을 평생교육과 연결 지어 그 가치를 탐색하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한국 현대사에서 일관된 자세로 평생 야인으로 살아온 무위당 장일순의 생애와 교육사상을 고찰함으로써 평생교육에의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의 생애에서 가르침의 의미와 평생교육 원리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 장일순의 교육사상이 오늘날 평생학습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은 장일순에 관한 역사적 사료 및 문헌 분석 고찰 등 해석적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로 장일순의 가르침은 ‘개문류하’, ‘일인일기’, ‘교학상장’, ‘교자체신’이 제시되었다. 장일순 교육사상에서 나타난 평생교육 원리는 ‘평등의 원리’, ‘실천의 원리’, ‘공생의 원리’, ‘해방의 원리’로 유형화되었다. 장일순의 교육사상이 평생학습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동등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실천 지향적 교육활동과 사회변혁’, ‘배움공동체 의미와 가치 구현’, ‘교수자의 비판적 성찰과 행동’ 등이 제시되었다. 교육자이자 동시에 학습자였던 장일순의 교육사상은 교수자 지식 전달 중심의 평생교육 현실과 민간 차원의 교육 운동과 실천가들의 교육활동에 평생교육 함의를 부여하며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주제어: 생애, 교육사상, 가르침, 평생교육 원리, 평생학습사회

I. 서론

최근 평생교육의 전개 양상은 2000년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으로 공적 평생교육 영역의 양적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95개에 달하는 도시가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관련 법적 기반 및 공적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확립하면서 공공 평생교육의 틀을 견고히 했다(교육부, 2023. 3. 7). 각 평생학습도시는 조례 제

* 주저자: 신민선(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sms@swu.ac.kr)

정, 전담 부서 설치, 평생교육 전문가 배치 등으로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고 일련의 지역 단위 평생교육 활성화라는 가시적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공공 평생교육의 성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평생학습사회 전개 양상에 대한 교육적인 회의와 비판을 가져왔다. 정형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연구 조망과 그에 따른 교육 활동을 전면으로 부각함에 따라 평생교육이 학교 교육의 틀 거리를 부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의 정형성을 답습하는 형태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신민선, 2018). 형식교육의 무형식, 비형식 학습을 존중하는 평생교육의 철학이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등 교육 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 및 제도화된 프로그램으로 제한되고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주도의 지역사회운동가, 실천가들의 삶과 사상에 대한 평생교육적 해석과 의미 부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신민선, 2018; 오혁진, 김미향, 2014). 이러한 양상은 과거 존 듀이가 말한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교육 과정이 아닌 삶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는 교육적 이상과 거리가 있으며(Dewey, 1938: 50), 교육을 교수활동으로만 인식하는 교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생학습사회라는 김신일의 주장(김신일, 2020)과도 상반된다.

이는 제도와 형식이 강조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주의와 경계로, 지역사회에서 살아 숨 쉬는 주민 주도의 자생적 교육활동과 삶에 대한 평생교육의 균형적 시각과 해석을 요구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에는 평생교육이란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다양한 교육 활동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회활동, 실천이란 이름으로 경험되고 전수되고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무형식, 비형식적 교육활동의 가르침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총합이 모여야 균형 잡힌 풀뿌리 평생학습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은 정형성으로 나타나는 교육 외 비정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삶, 생활의 통합과 점이다. 랑그랑(Lengrand)이나 다베(Dave) 등 대부분 교육학자들도 평생교육을 일종의 ‘전 생애와 전 사회의 교육활동을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새로운 교육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한승희, 2004: 29).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나타나는 생각, 말, 행동, 실천 등,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행하는 다양한 실천 및 활동에 대한 의미를 평생교육 원리와 결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전 생애 기간 삶에서 나타난 개인적 사상과 철학의 의미를 교육 차원에서 살펴보는 연구이기도 하다. 최근의 사상사 연구도 시대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교육적 사상의 출현을 요구하며(심성보, 2022), 우리의 교육적 사유가 보다 폭 넓은 교육 실천과 교육 과정이 되도록 교육사상 연구의 지평 확장 시도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진, 장윤선,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 현대사에서 일관된 자세로 시대정신을 구현한 무위당 장일순의 생애와 사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장일순은 평생 야인으로, 원주 지역의 주민으로 살아오면서 길을 잃은 후학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눈을 뜨게 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김기섭, 2021; 김재익, 2019). 대부분 그를 만나 교류했던 사람들은 그를 지역사회운동가, 실천가, 사상가, 서화가, 철학자¹⁾ 등 다양한 수식어로 그를 지칭하는데 예외 없이 그를 평생을 가르친 교육자라는데 대부분 동의한다(김기섭, 2021; 김재익, 2019; 이용포, 2011; 이창언, 2015).

실제 장일순은 ‘대성학원’이라는 중·고등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친 교육자였고 교수자의 가르치고자 하는 ‘교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나뉘고 고정된 것이 아닌 “교학상장”, “줄탁동시”의 참된 교육을 추구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받는다(이창언, 2015: 23). 또한 그를 존경하는 후학들이 1994년 5월 장일순이 타개한 이후 2011년 4월에 그의 호를 따서 원주 지역에 누구나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대중 교실인 ‘무위당학교’²⁾를 세웠다는 것은 장일순이 살아생전 후학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는지 그의 생애와 사상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무게를 실는다.

하지만 그간 장일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생명의 사회운동과 생태 사상으로 종교학, 인문학, 철학 분야에 집중되었다. 생명 사상을 조명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가로서, ‘한살림’을 태동시킨 장본인으로서 환경운동가, 생명 운동가의 면모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기섭, 2021; 김재익, 2019; 전호근, 2016b). 다른 한편으로는 가톨릭 신자이면서 유년기부터 유불선(儒佛仙)을 조부와 스승에게 배우고 동학사상에도 조예가 깊었기에 기독교와 동양 종교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포용했던 종교 사상가로서의 족적과 사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김기섭, 2021; 황경훈, 2021).

이처럼 장일순에 대한 연구가 그가 교육자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장일순의 족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그가 남긴 말과 다양한 일화, 서화 작품, 나아가 사회적 실천에 함축되어있는 그의 일관된 삶의 철학 및 사유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연구한 글은 드문 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장일순 생애와 사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일순의 가

1) 전호근은 「한국철학사」 현대철학자 명단에 신남철, 박치우, 박종호, 유영모, 함석헌과 함께 장일순의 이름을 올리고 그의 철학을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좁쌀 철학’으로 소개한 바 있다(전호근, 2016a). 그는 ‘어느 철학자의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장일순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평화 사상을 논하였다(전호근, 2016b: 81).

2) ‘무위당학교’는 장일순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생명 공동체적 삶의 가치와 협동의 정신을 기리는 비형식 교육기관이다. 2011년 4월 원주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 대전, 부산, 서울, 제주 등에서도 ‘무위당학교’가 개설되었으며 새로운 대안 사회를 위한 배움의 장소가 되고 있다(<http://www.muwidang.org/page/view.php/4sub1> 에서 2023. 4. 15. 인출).

르침과 그에 따른 평생교육 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생학습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 시사점도 찾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첫째, 장일순의 생애와 교육활동은 어떠한가, 둘째, 장일순의 교육사상이 갖는 가르침의 의미와 평생교육 원리는 무엇인가, 셋째, 장일순의 교육사상이 오늘날 평생학습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이다.

이 연구는 장일순의 역사적 사료 및 문헌 분석고찰을 위한 질적 연구를 하였다. 그간 출간된 장일순에 관한 다양한 연구 논문과 ‘무위당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를 1차 추출하였고, 2차 자료로 ‘무위당사람들’이 감수한 김삼웅의 「장일순 평전」,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인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무위당을 기리는 모임’이 엮은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이용포의 「생명 사상의 큰 스승, 무위당 장일순」을 주된 분석 자료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료 분석의 객관적 타당성을 위해 여러 사료에서 공통으로 제시되는 내용의 교차 확인을 통해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정확한 사실만을 기술·분석하였으며 인간의 내면 활동과 사회의 작동 양상을 깊이 이해하려는 차원의 해석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안광식, 2013). 사상 연구에서 피해야 할 “연구자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이야기하고 그것의 시사점만 언급하는 단장 취의(斷章取義)의 우”(안광식, 2013: 140)를 경계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상가의 기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분한 추양 및 해석, 유명세를 추인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장일순의 생애와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함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평생학습사회의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II. 장일순의 생애와 교육활동

1. 장일순의 생애

가. 출생과 성장(1928-1950년)

장일순은 1928년 10월 16일 아버지 장복흥(張福興)과 어머니 김복희(金福姬) 사이의 6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장일순은 원주보통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할아버지의 친구이자 독립운동가인 차강(此江) 박기정(朴基正) 선생에게서 글을 배웠다. 차강은 당시 이 집안의 식객으로서 한문과 서예에 조예가 깊어 뒷날 장일순의 서화(書畫)에 영향을 끼쳤다.

장일순은 1940년 원주초등학교 졸업 이후 천주교 원동교회에서 세례명 요한으로 영세를

받고 평생 천주교 신자로 지냈다. 중학교부터는 서울로 유학을 떠나 1944년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같은 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신인 경성공업전문학교에 입학하지만 1945년 미군 대령의 총장 취임을 핵심으로 하는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국대안) 반대 투쟁의 주요 참여자로 지목되면서 제적되었다. 이후 미 군정이 서울 각 대학의 반대 투쟁에 손을 들면서 수정 법령을 공포하면서 1947년 학생 3,518명이 복직하게 되는데 장일순도 이에 포함되었다.

장일순은 원래 다니던 공과대학이 아닌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입학하였지만 1950년 6·25전쟁 발발로 끝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원주로 돌아온다. 이후 전쟁 기간 중 거제도에서 보낸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생 원주를 떠나지 않고 원주 사람으로 살았다.

나. 교육 사업과 진보 정치(1951-1963년)

서울대 복학을 포기한 장일순은 청소년 교육에 매진하기로 결심하고 1953년 성육고등공민학교 교사로 들어갔다. 무보수 자원봉사 교사로 지낸 1년여 후 학교의 이사장을 겸하던 교장이 공립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아 떠나게 되면서 장일순은 26세의 나이에 교장으로 추대되었다. 장일순은 안창호가 평양에 설립했던 민족학교 대성학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학교 이름을 대성학교로 고치고 삶의 가치관을 반영한 ‘참 되자’를 교훈으로 정하였다. 이후 5년간 이 학교에서 봉직하였다. 장일순은 1957년 서울에 사는 이인숙(李仁淑)과 결혼하였다. 이인숙은 사범대학을 나온 앞날이 촉망되던 여성이었는데 장일순이 원주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자 좋은 교육자가 되려고 한 자신의 꿈과 일치한다는 생각에 장일순에게 마음이 끌렸다고 했다. 장일순은 이인숙과의 사이에 3남을 두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주적 전횡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어 장일순이 경영하던 대성학원도 경찰과 반공청년단원 등의 횡포가 잇따랐다. 장일순은 부패한 사회상을 고발하기 위한 명분으로 1958년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섰고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와 자유당의 횡포를 고발했다. 총선 선거 결과는 자유당 126석, 민주당 79석, 무소속 27석으로 쓰라린 패배였다. 1960년 사회대중당 후보로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극심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낙선하였다.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평소 장일순이 주장했던 중립화 평화 통일론이 빌미가 되어 서대문형무소와 춘천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장일순은 평생 독서인으로 살았는데 특히 수감생활 중에는 주로 동서양 고전을 읽고 영어로 된 진보사상 관련 원서를 읽었다. 옥바라지하던 부인은 서울 종로에 있는 외국 서적 전문 서점에서 어렵게 원서를 구해 장일순에게 전달했다. 장일순은 후일담으로 감옥을 인생 대학이라고 칭하고 자신을 무료 국립대학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963년 출소 뒤 다시 대성학원 이사장에 취임했으나 한·일 굴욕 외교 반대 운동에 연루되어 이사장직을 박탈당했다. 정

부 당국은 정보기관을 앞세워 장일순을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었는데 결국 그는 참된 교육자가 되고자 했던 꿈을 접어야만 했다.

다. 지학순 주교와 협동조합 운동(1964-1976년)

장일순은 1965년 나이 37살에 44세의 젊은 신부 지학순을 만나면서 그와 평생의 동지이자 지기로 살았다. 두 사람은 지학순 주교가 1993년, 장일순이 1994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동반자로 살면서 민주화 운동, 협동조합 운동 등을 함께 펼쳐나갔다. 장일순은 1966년 원동성당 내에 원주 최초의 신협인 원주신협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으며 본격적인 협동조합 운동에 나섰다. 1966년에는 황지신협, 문막신협, 단구동신협, 삼척신협을 잇달아 설립하고 1970년에는 영산광역시신협(영광신협), 세교신협 창립을 주도했다. 1971년에는 대성고등학교 제자들과 함께 원주 가톨릭센터에서 밝음신협을 열면서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는데, 밝음신협에서 1980년에 구급차를 원주소방서에 기증한 일은 '119구급대'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1972년 8월, 남한강 유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지학순 주교는 세계 각국의 가톨릭 구호 기관에 지원을 호소하여 당시 단양군 1년 예산에 맞먹는 긴급구호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은 일방적 지원은 당장은 좋겠지만 오히려 의존하는 지역주민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에 수해를 당한 사람이 스스로 할 일을 찾게 만드는 재해 대책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했다. 그 결과 마을 개발 사업은 남한강 수해복구에 그치지 않고 광산촌까지 확대되었고 구체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 당시 농촌과 광산촌에 만들어진 신용협동조합은 총 74개에 달했고 소비자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으로 진화해갔다. 장일순은 마을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은 민주주의 교육을 훈련하는 과정이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했다.

한편, 장일순은 197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날조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해 지학순 주교와 함께 국제사회에 관심과 연대를 호소하기도 했다. 민청학련에 시위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학순 주교가 구속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1974년 원주 원동성당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결성의 중심이 되었고 원주는 반유신 저항운동의 전진기지 및 해방구가 되었다. 그 중심에는 지식인과 종교계의 결합인 장일순과 지학순 주교가 있었다.

라. 동학 최시형과 생명 운동(1977-1990년)

1970년대 중반 장일순의 활동 기조는 동학 정신에 기초한다. 장일순은 차강 박기정 선생, 해월 최시형 선생의 영향으로 학창 시절부터 동학사상과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최시형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기본 가치에서 하늘을 섬기고(敬天, 경천), 사람을 섬기고(敬人, 경

인), 천지 만물을 섬기라(敬物, 경물)는 삼경설(三敬設)을 제시한 바 있다. 장일순은 최시형의 동학사상을 흠모했고 1990년 4월 해월 최시형이 관군에게 붙잡혔던 장소인 원진녀 집 현장에 추모비를 세우고 해월의 작은 족적이라도 알리고자 했다. 민주화를 위한 행동인이자 고뇌하던 사색인으로서 장일순은 사회운동 방향을 점차 생명 사상으로 전환해갔다. 장일순은 최시형의 동학사상에 자신의 또 다른 사상을 보태어 장일순만의 생명 사상을 정립했다.

장일순은 1980년 초 유기농산물 계약 재배를 시작하는데 그만의 생명 사상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일환이었다. 황성군 공근면의 가톨릭농민회원 열 가구를 시범으로 한 ‘땅 살리는 운동’을 시범으로 1983년 원주소비자협동조합 창립 등 장일순은 본격적인 생명 운동에 뛰어 들었다. 1990년에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은 ‘원주 한살림’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한살림’의 의미는 모든 생명을 함께 살려내어 더불어 살자는 장일순의 생명 사상이었다. 1986년 12월 서울 제기동에 유기농 쌀가게 ‘한살림’을 첫걸음으로 본격적인 생명 운동을 전개하고 1988년에는 ‘한살림’ 운동의 기금 조성을 위한 시화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장일순은 1965년 37살 때부터 써오던 ‘청강(淸江)’이라는 호를, 1980년대 이후에는 ‘무위당(無爲堂)’으로 바꾸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조 한 알이란 뜻의 ‘일숙자(一粟子)’를 주로 사용하며 하찮은 벌레나 풀잎보다 자신을 낮추고자 했다.

마. 투병 생활과 운명(1991-1994년)

장일순은 1991년 6월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강연 요청이 쇄도하였는데, 생과 사에 크게 패념하지 않는 그의 성격으로 투병 생활 중에도 계속 강연과 사람들을 만났다. 그의 강연 주제는 생명 사상, 노자에 기반한 협력, 상생의 원리, 생태학적 예수 등 종교와 삶의 도량을 넘나드는 내용들이었다. 이현주 목사가 원주 봉산동으로 장일순을 찾아가 노자 이야기를 나눴던 ‘노자 대담’은 다 마치지 못한 채 장일순이 눈을 감았기에 훗날 단권으로 간행되었다(이아무개, 2007). 장일순은 투병 중에도 지학순 주교 기념사업회 구성을 지도하는 등 평생 동지인 지학순 주교의 추모사업을 독려했다. 그는 병을 이기려고 투병하는 것이 아닌 병을 잘 모시고 가야 한다며 삶과 죽음 모두 자연의 일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994년 5월 22일 부인과 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산동 자택에서 영면에 들었다. 그의 나이 67세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일순의 생애 단계별 핵심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장일순의 생애 단계별 핵심 활동 정리

생애 단계	핵심 활동
-------	-------

<p>출생과 성장 (1928년~195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운동가인 차강 박기정 선생에게서 글을 배움 •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천주교 세례를 받음 • 중학교부터 서울로 유학 와 배재경성공업전문학교에 입학함 •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 반대 투쟁의 주요 참여자로 지목되면서 제적당함 • 복적 후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입학하였지만 6·25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원주로 돌아옴
<p>교육 사업과 진보 정치 (1951년~196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육고등학교 공민학교 교사로 들어감 • 1년 후 26세 나이에 교장으로 추대되고 대성학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대성학교로 교명을 고침. • 1957년 이인숙과 결혼, 사이에 3남을 둌. • 1958년, 1960년 부패한 사회상을 고발하기 위해 무소속, 사회대중당 후보로 국회의원 출마, 낙선함. • 중립화 평화 통일론이 빌미가 되어 서대문형무소와 춘천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름 • 1963년 출소 뒤 대성학원 이사장에 취임하나 한·일 굴욕 외교 반대 운동에 연루되어 이사장직을 박탈당함.
<p>지학순 주교와 협동조합 운동 (1964년~1976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7세의 나이에 평생의 동지가 될 젊은 신부 지학순을 만남 • 1966년 원주 최초의 원주신협을 설립하고 잇따라 여러 협동조합을 설립함 • 1971년 밝음신협을 설립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전개함 • 남한강 유역의 집중호우에 수해를 당한 사람이 스스로 할 일을 찾게 만드는 재해대책 사업을 전개함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결성에 중심 역할을 함
<p>동학 최시형과 생명 운동 (1977년~199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시형의 동학사상을 흠모하고 작은 족적이라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함 • 동학사상에서 점차 자신만의 생명 사상을 발전시켜 나감 • 가톨릭농민회원을 시범으로 땅 살리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유기농산물 계약 재배를 시작함 • 1983년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을 창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생명 운동을 전개함 • 1986년 서울 제기동에 유기농 쌀가게 ‘한살림’을 개장함 • 한살림 운동의 기금 조성을 위해 시화전 및 전시회를 개최함 • 청강이라는 호에서 무위당, 조 한 알이라는 일속자를 즐겨 사용하기 시작함
<p>투병 생활과 운명 (1991년~1994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위암 진단을 받음 • 투병 기간에도 협력, 상생의 원리를 역설하는 강연을 지속함. • 지학순 주교의 추모사업을 독려함 • 생과 사에 크게 패념하지 않다가 1994년 봉산동 자택에서 운명함

2. 장일순의 교육활동

가. 참된 교육으로 사회의식을 키우다

장일순은 1953년 서울대 복학 대신 성육(聖育)고등공민학교 교사로 들어갔다. 자신이 내는 등록금이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졸업 때까지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였다. 25세 나이에 청소년 교육에 받을 담은 장일순은 26세 교장으로 추대되었다. 장일순은 성육학교가 전수학교이다 보니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이 어렵다는 판단에 정규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는 재단법인 대성학원 설립 기성회를 결성하고 부동산 24,877평을 재단법인 대성학원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으로 증여하면서³⁾ 학교 이름을 평양의 민족학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취지를 살려 대성학교로 변경했다. 그는 1954년 3월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교훈을 ‘참되자’로 정하였다. 대성학원은 1954년 5월 총 3학년 학생 정원 150명으로 대성고등학교 설립 인가를, 1955년 4월 총 6학년 정원 300명의 대성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성육학교가 전수학교이다 보니 아이들이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규 고등학교를 설립하자는 결심을 하신 거죠. 교육부로부터 어렵게 설립 인가를 받고 교실이 완성될 때까지 명륜동 원주향교의 건물을 빌려서 열댓 명을 학생으로 받아 학습을 꾸렸습니다. 학교는 향교 뒤편 야산을 깎아 지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구한 아스팔트 루핑으로 지붕을 씌운 건물을 지어 3학년 150명 학생들을 향교와 신축 교사에 나누어 가르쳤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원주에 진주해 있는 1군 사령부 군대 장비를 지원받아 만들었습니다. 일순 형님이 이사장을 맡았고, 학교를 같이 설립한 친구 장운 씨가 교장에 취임했습니다(김삼웅, 2019: 57-58).

‘참 되자’라는 교훈에 맞게 교가도 ‘힘차라, 대성의 명량한 건아야!, 희망이여, 크거라, 세계를 위하여! 이상을 닦아라, 인류를 위하여! 라고 직접 작사하여 학생들의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었다. 대부분 공부 잘하는 성실한 학생이 되라는 다른 학교 교가와와는 차원이 달랐다. 학교 뱃지 또한 지구를 나타내는 둥근 마크에 사람 인(人)자를 새겼는데 학생들이 지역이나 한반도에 머무르지 말고 세계로 향하는 원대한 꿈을 꾸라는 의미였다. 학생들

3) 학교를 같이 설립한 장운 씨도 부동산(임야, 전, 답, 대지) 445,447평을 대성학원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으로 증여하였다. 대성고등학교 홈페이지 ‘대성학원 발자취’ 참조. <http://daesunggo.gwe.hs.kr>에서 2023. 4. 15. 인출.

이 졸업한 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인1기(1人1技) 교육을 해서 지식에 치우친 교육이 아닌 실용 교육을 강조했고,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사회의식에 눈을 뜨도록 그의 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시골 학생들이 접할 수 없는 사회 인사들의 초청 강연을 월 1회 준비했다. 함석헌, 오세창, 유달영 선생 등 한국의 저명한 학자 및 사상가들이 학교를 방문했기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초청 강연이 있을 때마다 장일순도 같이 강의를 들었다.

대성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좋았던 것은 이사장으로 계셨던 무위당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함석헌 선생, 오세창 선생님, 유달영 박사 같은 훌륭한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게 한 것이에요. 시골 학교 학생들이 유명한 분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무위당 선생님의 넓은 인맥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중략).. 다른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는 가난했지만 학생들의 자부심은 매우 컸죠(노변정담, 2020. 1. 15).

대성학교 학생들이 1963년 박정희 정부의 한·일 굴욕 회담 반대 데모를 전국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한 것은 사회의식에 일찍 눈을 뜨게 한 장일순의 참된 인간이 되라는 실천 교육 결과였다. 대성고등학교 학생 4백여 명이 가두시위⁴⁾를 벌였고 이 시위로 대성고 학생 6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일로 장일순 또한 이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정치활동정화법」과 「사회안전법」 등에 묶여 모든 활동에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장일순도 고초를 당했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았고 퇴학당한 학생들을 집에다 불러 일주일에 2~3시간씩 대화를 나눴다. 그들이 학교에 복학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학교를 쉬는 동안 읽어야 할 책 목록 쪽지를 전했다.

대성학교 학생들이 사회의식에 눈을 뜨다 보니까 한·일 협정이 너무 굴욕스럽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돈 몇 푼 받아서 우리가 갑자기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정부에서는 떳떳하지 못하게 굴욕적인 회담을 하는 걸까? 하는 분노가 치솟는 거였어요. 동급생들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한일회담 비준을 4월 3일에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비준하

4) 동아일보 1965년 4월 3일자 석간 7면의 기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원주서 데모’, ‘2일 낮 3시 반 이곳 대성고교 남녀학생 4백여 명이 「굴욕외교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교문을 나와 『매국적 행각 집어 치우라』고 외치며 「데모」를 벌였다. 학생들은 시청 광장으로 몰려다가 출동한 50여명 경찰관에 막혀 시가로 나와 한때 옥신각신 학교로 되돌아가기로 타협을 보았으나 우체국 앞에 이르러 일부 학생이 약 20분간 연좌 구호를 외치며 「데모」를 하다 교직원의 설득으로 귀교했다. 한편 경찰은 대성고교생 장영현 군 등 7명을 연행 문초 중이다’(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19650403 에서 2023. 5. 1. 인출).

기 전날인 4월 2일에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학생시위를 한 거죠. 주동은 제가 했어요. 반장을 하는 바람에 한·일 굴욕 회담 반대 데모에 앞장서게 됐죠.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 광목을 사서 플래카드를 만들고 전단지도 만들었죠(노변정담, 2020. 1. 15).

나.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과 즐락동시

장일순은 성육고등공민학교, 대성학원 이사장으로 봉직하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상하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서로 배우는 수평적 관계임을 강조했다.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배우면서 가르치고 학생은 교사로부터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것이다. 당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교사가 갖고 있던 권력과 권위를 고려한다면 그의 생각은 파격적이었다. 파올로 프레이리가 지적한 은행적금식 교육처럼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은 학생의 사고력을 마비시킨다고 믿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을 강조했던 장일순은 엘리트 교육을 경계했다. 서로 협동해서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잘난 몇 사람을 길러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나 혼자만 잘사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해서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지요. 특정 분야에 재주가 남다른 영재라 하더라도 재주를 키워 주기 전에 먼저 남을 배려하고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재주만 믿고 남을 짓밟고 부리려 들지요. 짓밟힌 애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라가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살벌한 경쟁만 남는 게지요. 똑똑한 영재를 하나 키우겠다고 나머지 둔재를 버리는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이용포, 2011: 67).

남다른 교육 철학을 가졌던 장일순도 가르침의 열기가 지나친 적도 있었다. 장일순에 비해 배움이 살길임을 알 수 없는 학생들이었기에 학생들은 결석이 잦았고 학교에 와서도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장난치기 일쑤였다. 공부에 열의가 없는 학생들을 볼 때 장일순은 조바심이 나서 간혹 매를 들기도 했다. 한번은 공부를 등한시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라고 했다. 자상한 면도 있었지만 단호한 호랑이 선생님의 모습이였다. 장일순의 종아리에 피가 맺힌 것을 보고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떨어뜨렸다. 훗날 장일순은 이때의 일을 두고 자신의 조급함을 후회하기도 했다.

젊었을 때는 조금한 마음에 ‘날 닦아라, 날 닦아라’ 했지. 허나 이젠 그 때 그 일이 후회스럽구먼. 줄탁동시(倅啄同時)라는 말이 있잖은가. 무어나 하면,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 껍질을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 닭이 새끼가 알에서 나오는 것 돕기 위해 바깥에서 쪼는 것을 ‘탁’이라 하거든. 그 둘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어린아이가 신이 나서 하게 해야지. 부모가 억지로 당긴다고 되나? 안 되지!(이용포, 2011: 71).

다. 평신도 교육과 협동조합운동

장일순은 지학순 주교와 함께 꾸르실료 교육 과정을 원주교구에 처음으로 보급시켰다. 꾸르실료는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신과 생활을 사회 속에 구현하려는 목적의 크리스찬 봉사자를 위한 단기 교육 과정이다. 스페인에서 시작한 신앙 부흥 운동의 하나로서 기도, 명상, 사도적인 봉사 등의 교육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일순은 1967년 서울에서 열린 꾸르실료 교육을 수료한 뒤 원주교구 남성을 위한 꾸르실료 교육을 개최했다.

장일순은 일본어로 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⁵⁾을 번역해서 교재를 만들어 매일 저녁 평신도 지도자 양성 교육에 힘을 쏟았다. 장일순은 강의뿐만 아니라 공의회 문헌을 공부하는 모임을 꾸리기도 하면서 사회와 역사에 대해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애를 썼다. 당시 원주의 젊은 청년들이 장일순의 강연을 들으러 왔는데 이들은 나중에 천주교 신자가 되기도 했고, 원주교구 ‘재해대책사업위원회’와 ‘사회개발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점차 협동조합 운동과 지역사회운동의 리더로 성장했다.

장일순은 1966년 지학순 주교와 함께 천주교 원동성당 신자들을 중심으로 ‘원주신용협동조합’을 창립, 이후 진광학교에 협동조합연구소를 만들고, 1973년 남한강 홍수 이재민을 위한 재해대책 사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협동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장일순은 독재 권력에 맞설 수 없는 상황에서 협동조합 운동이야말로 현실정치를 벗어난 삶의 정치가 가능하

5)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1962년 10월 11일에서 1965년 12월 8일 폐막 시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총 4 회기의 공의회로 이루어졌다. 당시 교황은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였으며 4개의 헌장,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을 담은 문헌을 선포했다(정진석 외, 2007).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사회정의의 가톨릭교회의 선교 정책에 통합하는 정책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인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와 인간 이하의 생활 조건, 불법 감금 등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강조했다(황종렬, 2006).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가톨릭교회에 많은 변혁을 가져다 준 회의로 우리나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태동 등 사회정의의 구현에 영향을 끼쳤는데 지학순 주교가 선구적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홈페이지 www.sajedan.org에서 2023. 5. 1. 인출)

다고 믿었다. 신협중앙회 사무총장이었던 이경국은 당시 장일순이 신협 운동을 시작할 때를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어느 날 신용협동조합 교육이 있다고 남으라고 하셔서 50여 명과 함께 무위당 선생님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협동조합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서 생소하기는 했지만 신선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50여 년 전에 영국에서 로치데일 공장 개척자 28명의 노동자가 협동운동을 시작하던 시절, 그리고 프랑스, 독일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운동이 기업의 착취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의 모순을 헤쳐 나가며 함께 잘살아가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중략)... 무위당 선생님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문화인 두레, 계, 품앗이 등 다양한 협동의 문화를 소개하시고, 돈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고 더불어 함께 사람답게 살려면 협동운동을 펴나가야 한다. 더구나 이농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은행 문턱이 높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일수놀이나 사채 시장에 매달려 허덕이는 중소기업인을 위해서도 신용협동조합 조직을 키워내어 땀 흘려 노력하는 민중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김삼웅, 2019: 135-136).

원동성당에서 원주신협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되어 실무자가 출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터졌다. 이를 계기로 장일순은 조합원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이후 조합원강습회와 임원강습회를 정례화하여 복식 부기 등 조합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지학순 주교 또한 “진광중·고등학교에 ‘협동’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주 1회 1시간씩 학생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학교 안에 ‘진광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협동조합”이 되었다(김삼웅, 2019: 138). 당시 가톨릭센터에서 장일순의 협동조합 교육을 받은 이 학교의 교사였던 박재일(한살림 초대 회장)은 아예 교사를 관두고 협동조합 활동가로 신협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신협 운동은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들이 사는 탄광촌에까지 확장되어 광부들의 의식을 일깨웠다. 비싼 사채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았던 광부들에게 장일순은 협동조합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훈련장이라고 강조했다. 광부들에게 협동조합의 원리를 가르쳤고, 광부들은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 유통구조를 줄이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며 이후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신용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장일순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교육활동이었다. 신협 임원 교육과 실무자 회계 교육, 조합원 및 광산 부녀자 교육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라. 동학과 생명 사상

장일순은 1980년대 민주화 투쟁 시기 사회변혁 운동에 동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립 개생을 위한 생명 운동에 관심을 쏟았다. 그가 1983년 도농 직거래 조직인 ‘한살림’을 창립하고 본격적인 생명 운동 실천 방식인 생활 협동운동을 전개한 배경에는 동학 2대 교주이신 해월 선생의 영향이 컸다. 해월 최시형은 밥 한 사발에 세상만사가 다 들어있다⁶⁾는 말씀으로 밥 한 사발의 우주적 만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동학에서 일컫는 인내천을 의미했다. 장일순은 사람만이 하늘이 아닌, 곡식 하나 돌 하나에도 한울님의 의미를 가졌다는 동학 사상에 관심을 두고, 자연을 파괴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허명을 경계하기도 했다.

일찍이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밥 한 그릇을 알게 되면 세상의 만 가지를 다 알게 되나리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멍텅구리라서 그 얘기를 몇십 년 전에 보면서 이게 뭘 얘긴가 하고 수없이 더듬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풀 하나, 돌 하나, 나락 하나도 땅과 하늘이 없으면, 물과 빛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미물들이 없으며, 이 우주가 없으면 나락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락 하나가 우주 없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나락 하나는 하늘이다! 나락 하나도 하늘이다! 그래서 해월께서는 이천식천이라 했어요.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다 하늘이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불생불명의 영원한 하늘이 함께하신다, 이 말이지요 (이용포, 2011: 179)

장일순은 동양, 서양의 사상을 탐구하였는데 특히 해월 최시형의 영향을 받아 자연이나 인간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점을 강조하며 공생과 호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동학의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 사상은 우주의 모든 질서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에 모든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장일순만의 새로운 철학과 사상으로 정립해갔다. 수많은 강연에서 그는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면 소비자가 필요 없으며 소비자가 없으면 농사꾼이 생산할 필요가 없다며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 없고 홀대할 수 없는 공생 관계를 강조했다. 장일순은 강연에서뿐만 아니라 서예가로서도 그의 생명 사상을 펼쳤다. 민주화 투쟁이 치열한 가운데 그는 자본주의 문명의 한계를 지적하며 함께 공생해야 하는 생명 사상의 중요성을 붓을 들어 난과 글자로 표현했다. 그는 그의 일을 겸손하게 낮춰 먹 장난이라고 했지만 그가 친 난과 글씨는 그의 철학적 사상을 거짓 없이 그대로 담았다.

6) 장일순은 ‘一碗之食 含天地人’(일완지식 함천지인)이란 글자를 붓글씨로 즐겨 쓰면서 동학사상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난을 치되 반드시 난이 아니라 이 땅의 산야에 널려 있는 잡초에서부터 삼라만상이 다 난으로 되게 해서, 시나브로 난이 사람의 얼굴로 되다가 이윽고는 부처와 보살의 얼굴로 되게끔 쳐보는 게 꿈일세(이용포, 2011: 167).

장일순의 글쓰기는 진정한 그의 삶의 철학을 대변하곤 했다. 고구마 장수와 얽힌 일화는 그가 가진 글씨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초겨울 어스름한 저녁 장일순은 술을 한잔하고 걸어가다 군고구마 장수가 쓴 ‘군고구마’라는 글씨를 만났다. 아무렇게나 쓴 ‘군고구마’라는 글씨를 보고 장일순은 한동안 물끄러미 응시했다고 한다. 비록 자신의 글씨보다 훨씬 못 쓴 군고구마 장수의 글씨이지만 그 글씨가 갖는 삶의 진정성을 본 것이다.

저게 진짜배기야. 내가 쓴 글씨는 가짜야 죽어있는 글씨야. 떡 장난일 뿐이지. 군고구마라고 쓴 저 글씨 좀 봐. 펄떡 펄떡 살아 있잖어. 따듯한 온기가 느껴지잖아(이용포, 2011: 169).

이렇듯 장일순의 삶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에 머문 것이 아닌 평등한 인간애를 몸소 삶에서 보여준 어른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일순 교육활동의 주요 사상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장일순의 교육활동과 사상적 특징

교육활동 분야	주요 사상적 특징
대성중·고등학교 학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정신 • 참교육 강조 • 사회 실천 교육 • 글로벌 시민성 • 교학상장 • 줄탁동시 • 문제해결식 교육
원주교구 평신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신과 생활을 사회 속에 구현 • 책임감 있는 시민 성장 의식 강조
신용협동조합 및 소비자협동조합 교육 한살림 생명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협동조합 원리 • 민주주의 원리 • 공동체 사상 • 생명 사상 • 공생과 호혜

난치기와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성 • 자애, 겸약, 겸손
----------	---

Ⅲ. 장일순 생애와 교육사상에서 나타난 가르침의 의미와 평생교육 원리

1. 장일순 생애에서 나타난 가르침의 의미

장일순은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은 참된 교육자상을 지향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았고 민중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경계했다. 장일순의 생애에서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문류하(開門流下): 밑으로 기어라

장일순은 매일 아침 봉산내 다리를 건너 시내 중심가로 나와 사람들을 만났다. 봉산동 집에서 시내까지는 도보로 2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지만 언제나 두 시간은 족히 걸렸다고 한다. 왜냐하면 길을 가다 만나는 사람들과 허물없이 사는 얘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원주역 주변에서는 장일순이 길가의 좌판 장수, 가게 주인, 아주머니, 아저씨 등 만나는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춰 쪼그리고 앉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그러다 마주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시골 아낙네가 길거리 좌판에서 거의 매일 만나는 장일순에게 딸 혼수비용으로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그 돈을 찾아달라며 매달렸다. 장일순은 그날 이후 원주역 앞 노점에서 소주를 시켜놓고 평상시처럼 노점상들과 얘기를 사나흘 나누면서 원주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소매치기를 알아냈다. 장일순은 그를 찾아가 남아있는 돈을 받아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소매치기 같은 행위는 매우 나쁜 일이니 절대 하지 말라고 나무라거나 당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매치기에게는 밥과 술을 사주면서 그의 영업 방해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 영업을 방해했어. 이것은 내가 그 일에 대해 사과를 하는 밥과 술이라네. 한 잔 받으시고, 용서하시라고(김삼웅, 2019: 287).

장일순은 민중을 교육하고 이끌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진정한 가르침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그에 의하면 가르침이란 밑바닥 풀뿌리 민중을 하늘처럼 섬기고 그들의 삶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해월 최시형이 37년을 전국을 떠돌며 민중들의 삶에 녹아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장일순 또한 개문류하(開門流下) 하듯 민중들과 함께 아래로 흐르는 삶을 강조했다. 장일순은 당시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 모여든 그들에게 “밑으로 기어라”를 입버릇처럼 들려주었다.

나. 일인일기(1人1技): 삶을 원하지 이론을 원하지 않는다

장일순은 사람들에게 이론을 설파하기보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글을 집필하지 않았지만 그가 몸소 보여준 삶은 어떠한 가르침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 유신시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거나 지친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안식을 얻었다. 그의 봉산동 집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나 장일순은 그들이 찾아올 때마다 스승이라고 시대를 설파하거나 미래를 단정 짓지 않았다. 단지 그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그의 품을 허락했다. 그들에게 장일순은 기대고 싶은 스승이었다.

민중은 삶을 원하지 이론을 원하지 않는다. 간디와 비노바 바베⁷⁾의 실례에서 배워야 한다. 사회변혁의 정열 이외에 영혼 내부의 깊은 자성의 태도가 필요하다(김삼웅, 2019: 166).

리영희⁸⁾는 장일순의 깊은 내면을 지닌 그의 큰 그릇과 같은 성품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 크기를 지니고 사회에 밀접하면서도 사회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 속에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시키면서도 본인은 항상 그 밖에 있는 것 같고,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고, 밖에 있으면서 인간의 무리들 속에 있고, 구슬이 진흙탕에 버무려 있으면서도 나오면 그대로 빛을 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없겠죠(김삼웅, 2019: 209).

이론보다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장일순의 가르침은 대성학교 시절 학생들이 졸업한 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인일기(一人一技) 교육을 한데서도 나타났다. 삶과 괴리된 지식만

7) 비노바 바베(Vinoba Bhave)는 간디의 제자로 비폭력 인권운동가·교육혁명가이다. 그는 브라만계급 출신이었지만 육체노동자를 자처하였고 제도 교육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학문을 쌓았다. 그는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가르치는 방랑 스승으로 불리기도 했다(Bhave, 2014).

8)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그는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쯤 김지하 시인을 통해 장일순을 소개받았는데 시대적 암울함에 힘들 때마다 자주 장일순을 찾아가 정담을 나눴다.

을 주입받지 않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기술을 익혀 나아가도록 도왔다. 당시 진학을 위한 국, 영, 수 과목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참된 교육을 위한 일인일기 교육은 장일순의 가르침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 교학상장(敎學相長): 작은 벌레도 거룩한 스승이다

장일순은 작은 벌레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다. 풀섶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작은 미물로부터 우주 만상의 가르침을 얻고자 했다. 고요한 밤에 울리는 벌레 소리의 거짓 없는 소리가 그의 삶을 돌아보게 한 거룩한 스승인 셈이다.

삶이 삶이 아니었다는 하나의 작은 벌레가 엄숙하게 가르쳐줄 때 그 벌레는 나의 거룩한 스승이요, 참 생명을 지닌 자의 모습을 저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김삼웅, 2019: 192).

그러니 모두가 다 ‘스승’이 되는 거라. 이 말씀은 요즘같이 이분법적 사고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참으로 알아듣기 힘든 엄청난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구먼(이아무개, 2007: 293-294).

그는 모든 생명의 존엄함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아호로 조 한 알이라는 일속자를 즐겨 썼다.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해월 선생의 뜻을 기려 “여자든 어린아이든 그 행동이나 말이 올바르면 나의 선생님”(김삼웅, 2019: 317)으로 여겼다. 통상 교수가 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누리는 권력의 비대칭을 고려한다면 그의 생각은 겸손한 학습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삶의 자세였다.

나도 인간이라 누가 추어주면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지그시 눌러주는 화두 같은 거야. 세상에 제일 하잘것없는 게 좁쌀 한 알 아닌가(김삼웅, 2019: 236).

그가 취한 겸손한 삶의 자세는 여러 번 목격되었고 회자되었다.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공안당국의 탄압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일순의 작품을 팔아 전사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장일순이 기증한 11점이 모두 팔렸는데 이 소식을 들은 장일순은 전사회 때 고생한 분들을 ‘도반’이라고 부르며 난을 쳐서 선물했다. 도반으로 쓰여진 난을 선물 받았던 이는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장일순의 돌풍 한 포기에 존경을 더하는 그의 겸손한 삶의 자세를 추모하였다(무위당소식들, 노변정담 78호).

태권도 도장 운영이 안되어 장일순에게 먹고 살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사범에게 돈을 대 줄 수도 없는 형편의 장일순이 그를 직접 도운 일화도 전해진다. 장일순은 자신이 도장의 회원이 되어 매일 도장에 가서 도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장일순을 만나려면 도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도장은 항상 이런 저런 사람의 방문이 이어졌다. 마침내 도장 사범은 1년 반~ 2년 만에 돈을 벌어서 옮길 수 있었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경계가 뚜렷한 세상에서 장일순의 가르침은 그 경계를 허무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평생을 살았고 가르침에도 배움이 있으니 교만하지 말라는 교학상장의 의미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스스로 실행하지 않으면 가르침의 의미가 없고 배우는 자가 듣지 아니한다는 서경(書經)에 나오는 효학반(敎學半)의 의미를 실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라. 교자채신(敎子採薪):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장일순은 1972년 원주, 제천, 단양 지역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독일 미체레오와 유럽의 카리타스로부터 받은 긴급구호자금을 공동사업, 협동적 개발 원칙에 의거 농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무상 지원이 아닌 농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을 개발 사업을 지원하되 중요 원칙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개인적인 사업이 아닌 공동사업, 협동적 개발 원칙을 지키는 사업이었다. 즉, 농민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물고기를 주어 당장 배를 부르게 하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교자채신(敎子採薪)⁹⁾이었다.

그 돈으로 물고기를 사서 주면 한 끼를 맛나게 먹고 말겠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서 내내 맛난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김삼웅, 2019: 143).

장일순은 상담원을 두고 농민들과 함께 그들의 문제를 찾고 분석하며, 마을 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했다. 마을 지도자를 육성함으로써 자립의 힘을 마을 자체에서 찾아낸 것이다. 상담원은 문제해결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마을 주민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마을 지도자에게 권한을 이양했다. 그 결과는 마을 내 협동조합 탄생 등 마을의 사안을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해결하는 지역협동 운동으로 돌아왔

9) 자식에게 뿔나무를 해 오는 법을 가르친다는 의미로 당나라 임신사(林愼思)의 속맹자(續孟子) ‘송신(宋臣)’에 나오는 말이다.

다.

2. 장일순의 교육사상에서 나타난 평생교육 원리

장일순은 자신을 평범한 원주 사람이라고 칭하였으나 그는 평생 주변의 추앙을 받는 어른이자 교육자였다. 그의 교육사상에서 나타난 평생교육 원리는 평등의 원리, 실천의 원리, 공생의 원리, 해방의 원리로 정리되며 이 원리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 평등의 원리

평등이란 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손철성, 2016). 유엔이 1948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을 보면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고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한 바 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천부적 혹은 사회적 요소들을 들어 차별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누군가를 교육하고 이끌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진정한 가르침이 일어난다는 장일순의 생각은 교육자와 학습자의 수평적 관계 기반에서 기득 계층의 독점 권력을 사회적 약자와 재분배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가난하고 무지한 가정도 스스로 해방되기만 하면 설명해주는 어떤 스승의 도움 없이도 자기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한 랑시에르 또한 “모든 지능은 평등하다는 원리에 따라 나머지 모든 것과 연관시켜야” 함을 강조했다(Rancière, 2008). 즉, 교육자와 학습자는 지적으로 완전히 평등한 관계로, 교육자의 보편적 가르침이란 배우지 못한 자에게 의도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우연한 방법으로 배움이 연쇄적으로 되풀이되어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다(정민승, 2012).

교육자가 학습자에 비해 누리는 우월한 지식의 향연은 학습자의 비판적 의식을 축소시키며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읽기, 쓰기, 셈하기가 되지 않는 비문해자의 경우 단순히 글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자의 지식에 압도당하고 자신이 갖는 인간의 존엄을 의식하지 못한다. 교육자가 학습자가 배워야 할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교육자의 지시대로 학습자가 따라야 하는 현실은 학습자의 비판적 성찰을 방해하는 불평등 교육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된다. 군고구마 장수가 쓴 글씨가 진짜라고 고백하는 장일순은 우월한 자에 종속시키는 통상적 불평등 관계의 한계를 넘는다. 배운 자들의 다듬어진 글씨가 인정을 받는 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자의 뻘뻘뻘한 글씨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갇힌 이미지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글씨에 내포되어 있는 상황적 맥락과 인간 본연에 대한 존중이다.

교육으로 인해 우월한 자가 우월하지 못한 자의 상대적 결핍을 드러내고 학습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아닌, 교육자와 학습자의 동등한 관계, 즉, 학습자를 사회 변혁의 주체로 위치 매김하는 것이야말로 민중들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 교육을 경계한 장일순의 개문류하 즉, ‘밑으로 기어라’의 철학이다. 교육자가 학습자 위에 군림하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 관습과 직위, 성별, 경제적 차이 등의 신분을 규정짓는 한국 사회에서 장일순이 강조한 교육사상은 이에 저항하는 ‘평등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나. 실천의 원리

마르크스(Marx)는 “육체노동자나 정신노동자 구분 없이 생산 실천을 토대로 한 모든 사회적 활동이 실천이고 변혁하는 실천에 참가해야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과정을 일종의 학습 과정”임을 주장했다(신민선, 2018: 27). 실천을 통해 경험되는 지식은 삶에 대한 성찰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추동하는 사회 변혁적 성격을 지닌다.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제보다 나은 나’로 성장하는 너머에 앎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장일순은 평신도 시절, 교회 교육의 일환으로 꾸르실료 교육 과정을 보급시키는데 앞장서는데 제2차 공의회 문헌을 번역해서 교재를 만들며 매일 저녁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았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공의회 문헌을 공부하는 모임을 꾸려 평신도들과 함께 성장하길 도모했다. 즉, 같이 의식을 키워가는 교육활동에 동참한 것이다.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협동조합이라는 실천 공동체를 꾸림으로써 앎을 실천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이론보다는 실천적 삶을 강조한 장일순에게 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한살림 설립 등은 그들이 배운 지식을 생활세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활동의 일환이었다. 교육활동이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될 때 그들이 쌓은 경험과 사회에 대한 연대감은 사회변화 및 변혁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한다(강수택, 2000; 신민선, 2018). 장일순은 협동조합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훈련장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비싼 사채에 시달리는 광부들은 자립 경쟁을 위한 사회변혁 운동에 동참하는 실천 활동에 시나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장일순이 대성 학교 교사 시절에 학생들에게 일인일기 교육을 강조한 것 또한 이론적 교과서 교육 너머 실천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이다.

장일순 삶의 초기는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 반대 투쟁’, ‘중립화 평화 통일론’, ‘한일 굴욕 외교 반대 운동’ 등 당시 사회가 갖고 있던 모순과 불합리함,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구조적 관계에 지식인으로서 정치적 실천 행동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점차 삶의 중기, 후기에 들어서면서 그의 실천 행위는 생활세계로 확장되었고 사회변혁을 위한 협동조합 운동,

한살림 운동, 생명 운동으로 전환되는 삶이었다. 장일순의 삶에서 보여준 협동조합 운동 등의 공동체적 실천성은 당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비판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운동의 세력화에 대한 일정한 설명력을 갖는다.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실천적 삶은 단지 텍스트 안에 머무는 지식인이 아닌 사회변혁을 위한 실천 행동으로 이어진다. 장일순의 교육사상은 ‘앎(knowing)’이 ‘함(doing)’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앎’과 ‘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앎’이 곧 ‘함’이고 ‘함’이 곧 ‘앎’이 되는, ‘앎’과 ‘함’의 간극이 없는 ‘실천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다. 공생의 원리

공생(共生)을 뜻하는 영어 ‘symbiosis’는 헬라어인 ‘syn’과 ‘biosis’의 합성어에서 유래하였으며 ‘함께’, ‘삶’이란 뜻을 내포한다(최재천, 2016). 공(共)은 ‘더불어’, ‘함께’의 의미를 포함하며 생(生)은 ‘생활’과 ‘생명’의 중첩적 의미를 갖는다. 생물학, 생태학 관점에서 공생(共生)은 “종류가 다른 생물이 같은 곳에서 살며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함께 사는 일”로 정의한다(네이버 사전).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는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장일순의 사상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확장해 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는 일체의 존재인 하늘과 땅, 우주를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하찮은 풀과 벌레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동격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땅 없이 살 수 없고 하늘 없이 살 수 없으니 지상에 있는 돌과 풀, 벌레도 모든 우주적 관계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생태적 공생의 의미를 역설했다. 인간 모두는 우주 만상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공생 살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가 주장한 공생의 범위는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까지 삶의 터전이 이어져야 하는 생명 정신과 실천으로 확장되었다. 장일순이 만든 ‘한살림 연구회’에서 발표한 「한살림 선언: 생명의 지평을 바라보면서」에서는 한살림을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이며 새로운 인식, 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 문화 활동’, ‘사회 실천 활동’, ‘생명의 통일 활동’”으로 정의했다(김삼웅, 2019: 270).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진단하고 성찰하는 한편 생태적 각성을 기반으로 삶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장일순은 한살림 공동체 치악산 연수회 특강에서 백범 선생의 연설을 예로 들며, 달리기 일등에 도취하지 말고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경쟁의 시대에서 협동과 공생의 시대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일순이 주장한 소비자협동조합, 한살림 운동 등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 땅을 회복하게끔 원시반본(原始返本)의 마음으로 같이 먹고살고, 살림을 나뉘지자는 협동 정신이었다.

“어느 한 주체가 다른 주체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원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김인아, 2015: 49).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제공자와 수혜자의 각자의 위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교학상장의 동반 관계일 때 가능하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나뉘고 고정된 것이 아닌, 어미 닭과 병아리가 서로 안과 밖에서 알을 쪼아야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출타동시의 교육철학(이창언, 2015)과 마찬가지로. 참된 교육의 본질은 타자와 내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긍정해야 하며 상대의 주체성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닌 그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다 함께 살아가는 주체성의 동일이다.

이러한 공생의 인식이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공평한 사회, 불확실한 미래,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 커지는 양극화, 민주주의의 후퇴, 위협에 처한 지구, 지속되는 빈곤의 신호에 실천적 응답이 가능해진다. 개인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평생교육 현실에서 공부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변화를 견인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책무는 더불어 사는 상생 공존을 강조한 장일순의 ‘공생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라. 해방의 원리

“성인이 학습한다는 것은 기존의 부당한 사회적 억압을 점차적으로 인식해 감으로써 사회의 변혁과 해방을 지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방”이다(신민선, 2018: 28). 즉, 해방이란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선해 나갈 때 발생한다.

스승이란 “학생에게 가르칠 것을 ‘알지 못하는 스승’, 어떤 앎도 전달하지 않으면서 다른 앎의 원인이 되는 스승”이라고 역설한 랑시에르는 교수자는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자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인의 교수자가 설명하고 다수의 학습자가 그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은 다수의 학습자가 갖는 다양한 지식·문화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1인의 내러티브가 내용과 맥락을 장악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Rancière, 2008).

장일순은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학생 또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립해갈 수 있도록 학습자의 관심사와 필요를 드러내도록 했다. 그들을 길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존엄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 되도록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가르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주체적 역할과 권한을 강조했다. 그럼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자신을 얽매이게 한 원인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기존 질서의 구습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의 해방성은 기존의 가치관을 허무는 여러 장면에서 나타났다. 장일순의 자택에서 원주 역까지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두어 시간 남짓 시간을 걸렸던 이유가 거리에서 마주치는 주민들과의 대화였다는 사실도 대화와 토론의 궁극적 목표가 학습자의 해방 또는 프락시스(praxis)라는 주장에 힘을 신는다(Freire, 2018).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A, B, C, D를 가르치려고 했던 대학생 봉사자에게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들 삶에 가까이 찾아가라고 주문했다. 또한 수해 긴급구조자금을 요구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기금을 배부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일어설 수 있도록 협동 원칙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 마을사업을 일군 점, 사회변화를 위해 평신도뿐만 아니라 광부들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하여 비싼 사채 시장에서 허덕이는 주민들을 해방시킨 점 등, 장일순의 생애는 줄곧 피억압자의 해방을 돕는 스승의 길로 학습자가 자신의 존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해방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IV. 논의

장일순의 교육사상이 갖는 평생교육 원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생학습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본질에 관한 논의로 확장할 수 있다.

첫째, 누구나 존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평등의 원리는 평생교육이 오히려 학습 약자의 재생산 구조를 강화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고병현, 2003)에 주목한다. 우리나라 만 25세~79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0.7%이다. 성인 10명 중 3명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데 학력별 참여율을 보면 대졸 이상이 40.3%, 중졸 이하가 15.6%로 고학력자의 참여가 저학력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월 가구 소득 또한 500만 원 이상이 34.7%, 150만 원 미만이 17.6%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취약계층의 참여율이 16.9%인데 취약계층 외는 31.4%로 이 또한 두 배 차이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즉 고학력,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학습자의 평생교육 수혜율이 높다. 자연스럽게 저학력, 사회적 약자가 학습의 약자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물질적 불평등이 정신적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장일순이 보여주는 평등한 가치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습의 양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층위가 존재하고 배제되는 학습자가 늘어나는 현실은 “각각의 사람을 한 사람으로 간주해야 하며, 한 사람 이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한 대우’ 즉, 평등의 원리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손철성, 2016: 6). 장일순의 아래를 향한 평생교육 정신은 과연 한국 사회가 모든 이에게 동등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는가에 대한 성찰적 사고를 요구한다.

둘째, ‘읽’이 ‘함’이 되는 실천의 원리는 지식이 쌓여가고 소비되는 평생교육 현실에 반성적 성찰을 촉발한다. 자격증과 수료증이 넘치는 사회지만 배운 공부의 양만큼 사회가 변했을가를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자원 남용, 민주주의의 후퇴, 혼란스러운 기술 자동화” 등의 문제는 교육의 폭발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22: 3). 한국은 2002년부터 시작한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정책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교육과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실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학습자로서 지역을 변화해가고 해법을 제시하는 책무와 권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다. 여전히 평생교육의 형태는 ‘교수자 중심’, ‘수강생 모집’ 등으로 인식되는 강의 중심의 지식 전달 교육이다. 인생 100세 시대에 학습자는 노후의 불안감으로 학습을 소비하기도 하고 평생교육 강사는 자신의 상품을 학습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화려한 수사를 동원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학습자가 사회의식을 갖고 자신의 생활문제를 풀 수 있도록 태도와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Dewey, 1938). 학습한다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학습과 실천의 합일이다. 왕양명 또한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관점에서 ‘학문사변(學文思辯)이 곧 행(行)임’을 강조하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간극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다. 마르크스(Marx) 또한 인식과 실천의 관계에서 실천이 오히려 위에 있어 변혁 과정의 사회적 실천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신민선, 2018). 이는 장일순이 이론보다는 삶을 강조하며 일인일기(1人1技)를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가 전개한 교육활동이 대부분 비형식, 무형식교육이었으며 사회적 실천과 결합하였다는데 평생학습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정해진 교과목을 외우고 답을 맞춰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평생교육이 아닌 생활세계의 모순을 인식하고 새로운 모색과 교섭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실천 지향적 교육활동에 관한 의미 부여와 그 가치를 해석하는 시도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서로에게 가르침과 배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해 가는 공생의 원리는 지속 가능한 배움공동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관한 논의를 요구한다. 유네스코는 평생교육 의미와 지향점을 ‘공생’에 놓고 이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1996년 발간한 자크 들로(Jacques Delors)의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보고서는 평생교육의 네 기둥으로 첫째,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둘째, 실천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셋째,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 살기 위한 상생 공존의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을 강조하며 평생교육의 상호 의존성, 상호 이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등의 이념을 강조했다(Delors, 1996). 1972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UNESCO 국제 성인교육회의 보고서에서도 평생교육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민중으로 규정”(한승희, 2004: 49)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집단과의 공생적 문제와 원칙 들을 설정하는 국제적 도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발간한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보고서인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에서는 “공동의 사회적 노력(shared societal endeavours)”과 “공동재로서의 교육(common good)”을 강조하며 인권에 근간을 둔 차별금지과 사회정의, 생명 존중, 인간 존중 및 문화 다양성, 돌봄의 윤리, 호혜주의, 연대를 포괄하는 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했다(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2021). 이 보고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은 오랫동안 인간사회 전환의 기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환 차별과 배제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새로운 평생학습사회를 위해서는 현재의 가르침 양상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장일순의 가르침이 강의가 아닌 이야기체의 토론을 중시했고, 이론 전달에 앞서 실천을 강조했으며, 전문가보다는 현장 중심의 아마추어를 존중하고 삶의 적용을 우선했다는 점은 누구나 소외됨 없는 배움공동체의 서로배움, 새로배움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평생학습사회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을 급격하게 경로를 바꾸기 위한 세 가지 질문¹⁰⁾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이다(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2021).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위한 사회계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해방의 원리는 점차 형식화 되어 가는 평생교육 현장의 교수자의 교수방식에 관한 논의와 성찰을 요구한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사회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자, 촉진자, 모더레이터이다. 즉, 가르친다는 일은 교수자가 닫힌 교실 안에서 자신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주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이끌어 사회 현장의 변혁적 주체로 학습자를 인도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이 그들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계획을 수립하며 학습성과 또한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장에서 학습자의 책임감을 고양하는 일이다. 따라서 안드라고지로 설명되는 평생교육의 경우 교수-학습활동은 학습자의 자기주도

10) UNESCO는 2021년 발간한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보고서에서 현재의 교육을 변혁하기 위한 세 개의 질문을 제시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re are three essential questions to ask of education as we look to 2050: What should we continue doing? What should we abandon? What needs to be creatively invented afresh?(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2021: 2).

학습에 방점을 둔다. Teaching보다는 Learning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교육의 모습은 한정된 공간에서 교수자가 가르치는 지식 전달 수업이며 개인의 지식적 성장을 우선시한다. 교수활동을 교수자와 학습자의 동시 활동이 아닌 교수자 한 명의 전문 역량으로 여기며 무엇보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면 교육활동을 종료한다는 점이다. 교육은 어제보다 나은 나로 성장하게 하지만 여기서 성장의 의미는 진정한 해방적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프레이리(Freire)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공동의 주체와 탐구자로 보는 해방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교수자가 자신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은행적교육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며 학습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제기식 대화를 통해 비판적 성찰과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Freire, 2018). 장일순의 가르침은 프레이리가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설명하려는 것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존엄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처한 현실에서 행동하고 성찰하도록 했다. 즉, 그의 삶은 첫째, 피억압자가 스스로 억압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피억압자가 억압적 세계를 인식하며, 셋째, 피억압자가 기존 질서의 구습 및 신화를 제거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해방교육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식 전달의 형태가 평생교육기관 홍보전단지를 가득 메우고 교육에 종속되어 가는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점에 장일순이 보여준 해방적 교육사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V. 결론

장일순은 한국 현대사의 엄혹한 시대에 후학들에게 길을 제시한 교육사상가이자 사회실천가였다. 시대를 변혁해간 인물이었지만 한 알의 작은 좁쌀을 자처하며 산 풀뿌리 지도자이자 시대의 어른이었다. 민주화 운동 이후 평생 야인으로 오로지 먹과 벼루와 화선지에 난과 글을 치며 살았지만 그의 삶은 평생교육적 실천으로 빛이 났다. 그간 장일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생명 사상, 생태 사상 등 종교학, 인문학, 철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었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가로서, 한살림을 태동시킨 환경운동가로서, 동학사상을 계승한 생명 운동가로서,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를 균형 있게 포용한 종교 사상가로서 주로 그의 족적과 사상에 주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는 장일순이 생전에 자신의 글 하나를 남기지 않았지만 평생의 교육자로 살아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의 생애와 사상을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그의 생애와 교육활동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가 보여준 가르침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원리와 평생학습사회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장일순의 교육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일순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평적 관계를 실제 삶에서 구현함으로써 진정한 학습주의를 구현한 교육자였다. 교수자가 학습자를 이끌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림으로써 학습자의 삶에 내재된 학습 목표를 학습자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되살렸다. 학습자의 비판적 성찰을 방해하는 불평등 교육 이데올로기의 한계에서 벗어나 누구나 동등한 관계에서 교육과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삶에서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평등성에 주목했다. 그의 삶은 현재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에 집중되고 학습자를 종속시키는 평생교육 현실에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 재설정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장일순은 단지 텍스트 안에 머무는 지식인이 아닌 사회변혁을 위한 실천을 생활세계로 확장함으로써 학습과 실천의 균형을 이룬 교육자였다. 그는 삶의 렌즈로 이론과 지식을 보았고 생활세계에서의 실천을 존중한 사상가이자 실천가였다. 자칫 관념에 함몰될 수 있는 교육사상을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고 앞서 이끌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습자 스스로 주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교육자였다. 그럼으로써 학습자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론과 지식에 치우친 교육이 아닌 실용 교육을 강조하며 학습자 주도로 사회변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적 실천을 촉진한 교육자였다. 그의 삶은 지식이 쌓여가고 소비되지만 사회변화를 추동하지 못하는 평생교육 현실에 반성적 성찰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장일순은 교육자이자 동시에 서로에게 가르침과 배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해가는 학습자였다. 그는 비록 작은 미물이라도 그에게 배울 것이 있고 모두가 다 스승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아호를 조 한 알이라는 ‘일숙자’로 자신을 낮추고 모든 우주 만상으로부터 가르침을 얻고자 했다. 가르치는 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배우고자 하는 자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평생교육이 사회적 약자, 학습 약자를 위한 공공선과 배움공동체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장일순의 경계를 허무는 학습자 자세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넷째, 장일순은 동학사상과 종교사상을 자신만의 생명 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으로 진화시켜 나간 학습자였다. 그는 평생을 가르치는 자의 정체성을 넘어 학습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했다. 그는 가르치기 앞서 자신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꾸르실료 교육 과정을 원주에 보급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린 해당 과정을 직접 수료했고 바티칸 제2차 공의회 문헌을 열심히 번역하고 공부해서 신도들을 가르쳤다. 그 외 ‘한살림 연구회’ 등 여러 차례의 학습모임과 토론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자신만의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와 끊임없는 학습으로 동학 및 유·불·선을 포괄한 새로운 생명 사상을 정립하였고 이를 민초의 언어와 실

천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는 이 시대의 큰 어른이자 진정한 학습자였다.

장일순은 교육과 학습을 가로지르는 교육자이자 동시에 학습자였다. 이른바 평생학습사회가 점차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자이자 학습자였던 장일순의 교육사상은 평생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 사회는 이미 일제 하의 농민야학 등 학습 약자를 위한 민간 주도의 교육활동의 역사에서 학습 약자를 위한 공공선 의미의 학습권 보장에 앞섰던 지도자들이 있다. 시대와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그들의 인식과 실천은 교육자로서 동시에 학습자의 관점에서 주민들의 삶과 연관된 교육과제를 제시하고 삶의 터전을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다.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킨 지도자들의 교육사상을 현재의 평생교육과 연결지어 그 가치를 탐색하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일순의 교육사상은 교수자 지식 전달 중심의 평생교육 현실과 민간 차원의 교육 운동과 실천가들에 대한 평생교육적 해석과 의미 부여에 주목하여 균형 잡힌 풀뿌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향후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생애와 교육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평생교육의 철학을 계승하는 것이 향후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 강수택(2000). 일상생활 세계와 성인 학습: 성인 학습 생활화의 사회 조건.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3(1), 2-33.
- 고병헌(2003). 평생학습-삶을 위한 또 다른 기회인가, 교육불평등의 확대인가. *평생교육학연구*, 9(1), 211-239.
- 김기섭(2021). 무위당 장일순의 생명의 사상과 공생의 사회운동.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1, 103-132.
- 김삼용(2019). **장일순 평전**. 두레.
- 김신일(2020). **학습사회**. 학이시습.
- 김인아(2015). 생과 공생의 식탁: 동일본대진재 이후 일본 한 생협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문화적 구성과 실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재익(2019). 장일순의 생명사상에 관하여-상생(相生), 공생(共生), 전생(全生)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51, 39-56.
- 무위당을 기리는 모임(2004).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녹색평론사.
- 손철성(2016). **우리는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 평등 원리의 정당화 문제**. 한국연구재단.
- 신민선(2018). 노동운동 출신 지역활동가의 정체성 이행 과정에 나타난 학습활동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심성보(2022). **플레이리에게 변혁의 길을 묻다**. 살림터.
- 안광식(2013). 교육사상 연구방법으로서 사상가 연구에 대하여. *교육사상연구*, 27(1), 121-146.
- 오혁진, 김미향(2014). 배민수의 사회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0(4), 31-53.
- 이아무개(2007).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삼인.
- 이용포(2011). **생명 사상의 큰 스승, 무위당 장일순**. 작은씨앗.
- 이창언(2015). 좁쌀 한 알 장일순 선생의 삶과 사상. *진보평론, 여름*(64), 18-37.
- 전호근(2016a). **한국철학사: 원효부터 장일순까지 한국 지성사의 거장들을 만나다**. 메멘토.
- 전호근(2016b). 장일순의 평화 사상-한국 전통불교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8(2), 80-109.
- 정민승(2012). '학습자 중심성'의 준거로서의 평등-랑시에르 이론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8(4), 103-118.
- 정진석, 김중수, 이창영(200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최재천(2016). **호모 심비우스**. 이음.
- 최진, 장윤선(2022).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분석을 통해 본 한국교육사상학회 30년 간 발표논문 동향과 시사점. **교육사상연구**, 36(2), 183-205.
- 한승희(2004). **평생교육론-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학지사.
- 황경훈(2021). 장일순의 종교성과 시민성 탐구: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이야기」와 「나락 한 알 속의 우주를 중심으로」. **신학전망**, 212, 155-199.
- 황종렬(2006). **현대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회정의 활동과 선교 정책: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70년대 전반기의 사회정의 활동을 중심으로**, 가톨릭출판사.
-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한국교육개발원.
- Bhave, V.(2014).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Thoughts on the Education*]. (김성오 역). 착한책가게. (원전은 1962년에 출판)
- Delors, J.(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UNESCO.
- Dewey, J.(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Collier Books.
- Freire, P.(2018). **페다고지**[*Pedagogy of the Oppressed: 50th Anniversary Edition*]. (남경태·허진 역). 그린비. (원전은 1970년에 출판)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UNESCO.
- Rancière, J.(2008). **무지한 스승**[*Le maître ignorant. Cinq leçons sur l'émancipation intellectuelle*]. (양창렬 역). 궁리. (원전은 1987년에 출판)
- 교육부 보도자료(2023. 3. 7). 2023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409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에서 2023. 5. 1 인출.
- 네이버 사전. <https://www.naver.com/>에서 2023. 4. 28 인출.
- 노변정담(2020. 1. 15).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담겨있는 교가를 부르면서 꿈을 키워어요 http://www.muwidang.org/board/board.php?b_id=info&cmd=view&num=9&page=1&cate=&eq1=&eq2=&eq3=&eq4=&eq5=&st=&sk=에서 2023. 5. 1 인출.
- 노변정담(2022. 5. 3). 무위당 선생님은 우리들을 도반(道伴)이라고부르셨습니다. http://www.muwidang.org/board/board.php?b_id=info&cmd=view&num=35&page=0&cate=&eq1=&eq2=&eq3=&eq4=&eq5=&st=&sk=에서 2023. 5. 2 인출.
- 대성고등학교. <http://daesunggo.gwe.hs.kr> 에서 2023. 4. 15 인출.

동아일보(1965. 4. 3).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19650403> 석간
7면에서 2023. 5. 1. 인출.
무위당학교. <http://www.muwidang.org/page/view.php/4sub1> 에서 2023. 4. 5 인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www.sajedan.org 에서 2023. 5. 1 인출.

·논문접수 2023. 05. 10. / 수정본 접수 06. 13. / 게재 승인 06. 22.

·신민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함. 현재 서울여자
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관심 분야는 지역사회교육, 시민교
육, 학습생애사 등임.

Abstract

Muwidang Jang Il-soon's Life and Educational Thought: Implic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Shin, Min Sun(Seoul Women's University)

Research exploring the value of lifelong education by connecting the life of a leader who made the living ground into a place of education and led change is significant. This study aims to realize the implications of lifelong education by examining the life and educational ideology of Muwidang Jang Il-soon, who is considered to have lived as an ordinary person all his life with a consistent attitude in Korean modern history. More specifically, the meaning of teaching and the principle of lifelong education in his life are examined, and the implications of Jang Il-soon's educational thought for today's lifelong learning society are discussed. Regarding the research method,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for interpretative research, such as exploring historical data and performing a literature analysis on Jang Il-soon. In the results of the study, Jang Il-soon's teachings are presented as 'Gaemunryuha', 'Illinillgi', 'Gyohaksangjang', and 'Gyojachaesin'. The principles of lifelong education that appeared in Jang Il-soon's educational thought are categorized into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practice',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and 'the principle of liberation'. The implications of Jang Il-soon's educational thought for a lifelong learning society are identified as 'the provision of equal lifelong education opportunities', 'practice-oriented educational activities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 implementation of meaning and value of learning community', 'instructors' critical reflection and action', etc. As an educator and a learner simultaneously, Jang Il-soon's educational ideology has implications for the reality of lifelong education centered on the delivery of knowledge by instructors and for the education movement and practitioners' educational activities at the private level, suggesting means for the realization of a lifelong learning society.

* **Key words:** life, educational thought, teaching, lifelong education principle, lifelong learning society